

# 구성과 특징 Structure

## INTRO

### 수능 국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본격적인 공부 전에 알아야 할  
**1 수능 국어의 산식**

수능 국어의 체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어렵는데 국어의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공부할 때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나마 공부의 결과가 제대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에 정답을 정확하게 찍기 전에 시험이 몇 가지로 나뉘고 각 시험에 무엇을 넣을지 계획을 먼저 세워보면 답을 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답을 작성할 순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공부하는 효율적인 공부도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능 국어는 2022년도 시험부터 '문학·언어·언어와 사회·언어와 직업'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수능 국어는 2022년도 시험부터 '문학·언어·언어와 사회·언어와 직업'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를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공통과목**

독서 지문은 **제재별** (1) 실용(문집, 동화), (2) 사회(법, 경제 등), (3) 예술(문예, 미술, 음악, 문학, 사극 등), (4) 기술(기술, 과학, 공학 등)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능 국어에서 독서는 총 4문항이 출제되며, 문학 지문은 **장작별** (1) 현대시, (2) 현대소설, (3) 고전문학, (4) 고전문학(고려, 조선) 순으로 출제된다.

1. **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주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

독서 영역의 지문이나 문항 영역에서도 해당 지문에서 묻는 문제는 사실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수능 국어 출제되는 문항 중에서는 해당 지문에서 사실적·주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제되는 문항 중에서도 해당 지문에서 사실적·주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출제되는 문항 중에서도 해당 지문에서 사실적·주론적 이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1. 독서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2. 독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독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독서 지문에서 찾아야 할 정보		독서 지문에서 찾아야 할 정보	
① 독서 지문에서 찾아야 할 정보	② 독서 지문에서 찾아야 할 정보	③ 독서 지문에서 찾아야 할 정보	④ 독서 지문에서 찾아야 할 정보
A는 80이다.	A는 80과 같다.	A는 80이다.	A는 80과 같다.
B는 80이다.	B는 80과 같다.	B는 80이다.	B는 80과 같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수능 국어 전체의 체계를 안내합니다. 또한 문제 유형을 중심으로 수능 국어 독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분석하고, **선지판단 전략**에서 각 유형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 PART 1

### 수능 국어 독서 독해 전략

#### (1) 정의와 예시

##### STEP 1 전략 배우기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전개 방식은 '정의와 예시'야. 우선 둘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살펴 볼까?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확히 밝혀 규정함.'이라는 의미이고, '예시'는 '예를 들어 보임.'이라는 뜻이야. 이러한 정의와 예시가 지문에서 내용 전개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그 본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원리나 법칙, 개념의 속성 등을 드러내는 방법

두 방식 모두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본질 혹은 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두 방식을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 지문에서도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정의를 제시하는 문장이 먼저 나온 뒤, 그에

#### STEP 2 문제 유형 확인하기

재출 P.010

##### 1~3 다음을 읽고 주어진 문항에 답하세요.

2016학년도 9월

"전략적 독해"는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점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투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대 소도서에 등장한 투리의 특징은 투리란 상황에 어려움을 때 패자를 추구하거나 협력자를 협력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자로 하여금 새로운 이해가 충돌해도 공존이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투리'와 관련된 소도서에 대한 정답은 '투리'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답을 고르면 된다. 정답은 '투리'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답을 고르면 된다.

#### + 국어의 문장 성분 알아 두기!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문장 성분)은 주어, 보어를 문장에서 주성문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호응하는 '서술어 1', '주어 2'와 호응하는

어머니는	동생이	{
주어 1	주어 2	}

**1등급 전략**

- ✓ 전략 1 'A는 ~이다.', 'A는 ~라는 일으면서 A에 대한 점' 호응하는 '서술어 1', '주어 2'와 호응하는 문장과 연결하여 내용을

#### 한 문단으로 살펴보는 배경지식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볼 때, 수능 국어 독서 지문은 기본적으로 학년별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도와주는 다양한 문헌과 관련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다양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난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쌓기 위해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다만 수능 국어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을 공부해 두는 게 좋겠어. 그게 무엇 인지는 분야별로 나중에 자주 등장할 문제를 정리해 보면 될 수 있지. 이러한 배경지식을 간단히 알아 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장 읽기 → 문단 읽기 → 글(지문) 읽기'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며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에서는 학습 내용에 관해 더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1등급 전략**에서는 독해 전략의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문단으로 살펴보는 배경지식**에서는 수능 국어 독서 각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관련 기출 지문을 안내합니다.

# 1 쉽고 친절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수능 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수능 국어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고3, N수생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쉽고 친절한 말투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2 단계별로 차근차근!

PART 1의 **STEP 1**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학습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STEP 2**에서는 확인 문제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합니다. PART 2에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웁니다. PART 1의 **STEP 2**와 PART 2에서는 **고1** → **고2** → **고3** 순서로 문제를 제시하여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3 혼자서도 어려움 없이, 강의와 Q&A로 막힘없이!

독학용 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보다 깊고 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에 대한 강의(유료)를 제공하고 Q&A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강의는 대성마이맥 홈페이지(www.mimacstudy.com), 교재 질문은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 PART 2

### 수능 국어 독서 실전 훈련

**(1) 나체의 예술 철학과 표현주의**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9월

서양 철학은 근대로부터 시작된 문명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따르면,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영혼의 의지로 보았다. 니체가 말하는 '영혼의 의지'는 주관적이거나 사유를 자기 마음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념으로 내세워 생명을 지탱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영혼의 의지'가 생명의 변화와 결실이라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성장을 위한 힘,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그는 본능에 내재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들 중 시와 음악,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성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철학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니체의 회화와 조각에서는

1. 서양 철학은 근대로부터 시작된 문명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따르면,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영혼의 의지로 보았다. 니체가 말하는 '영혼의 의지'는 주관적이거나 사유를 자기 마음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념으로 내세워 생명을 지탱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영혼의 의지'가 생명의 변화와 결실이라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성장을 위한 힘,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그는 본능에 내재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들 중 시와 음악,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성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철학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니체의 회화와 조각에서는

**구조도**

**1. 1차문** 문장의 중심사상

— 앞의 문장이 1차문 속도로 문동하는 \_\_\_\_\_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속도 폭도 곡선의 경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문장 특징

— 파장이 긴 \_\_\_\_\_ 영역보다 미세한 문장의 내부 구조 파악할 때 활용 가능

2. 2차문

— \_\_\_\_\_에 따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의 파장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_\_\_\_\_을 지칭

— 파장이 길면(나노) 물질의 자화현상, 주파수 파장은 \_\_\_\_\_의 진동 수로, 빛의 세기(파장)에 반비례하고 빛의 파장에 반비례함

**3. 3차문** 문장의 구조와 문리

① 전치사(접속사)

— (1) \_\_\_\_\_에서 접속사 그다음 문장의 부속을 바꿀 때 접속사(접속사)로 활용

② \_\_\_\_\_에서 전치사(접속사)로 활용

③ \_\_\_\_\_의 속도에 가변적인 전치사 \_\_\_\_\_으로 이동

\*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2. 2차문** 문장의 문리

전치는 삽입장에서 자기만의 영향을 받아 1차문과 2차문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어 구문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며 해당 방향이 정해진다.

**3. 3차문** 문장의 문리

전치는 삽입장에서 자기만의 영향을 받아 1차문과 2차문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어 구문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며 해당 방향이 정해진다.

**4. 4차문** 문장의 문리

전치는 삽입장에서 자기만의 영향을 받아 1차문과 2차문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어 구문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며 해당 방향이 정해진다.

**5. 5차문** 문장의 문리

전치는 삽입장에서 자기만의 영향을 받아 1차문과 2차문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어 구문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며 해당 방향이 정해진다.

**6. 6차문** 문장의 문리

전치는 삽입장에서 자기만의 영향을 받아 1차문과 2차문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어 구문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며 해당 방향이 정해진다.

영역별·유형별 기출 지문을 통해 PART 1에서 학습했던 문장, 문단, 글 단위의 독해 전략을 적용해 보는 훈련을 합니다. 구조도의 빈칸을 채우고 각 지문에서 선별된 어려운 문장을 분석하며 자신의 힘으로 독서 지문을 분석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정답과 해설

**(1) 나체의 예술 철학과 표현주의**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9월

서양 철학은 근대로부터 시작된 문명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따르면,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영혼의 의지로 보았다. 니체가 말하는 '영혼의 의지'는 주관적이거나 사유를 자기 마음으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념으로 내세워 생명을 지탱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영혼의 의지'가 생명의 변화와 결실이라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성장을 위한 힘,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그는 본능에 내재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들 중 시와 음악,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성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철학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니체의 회화와 조각에서는

**지문 파고들기**

이 지문에는 인문과 예술 영역의 내용이 융합되어 있어, 처음에는 존재에 대한 서양 철학자들의 견해와 이를 종합하여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이 된 플라톤의 견해를 살펴본 뒤, 플라톤의 견해에 대한 니체의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그런데 후반부에는 니체의

**정답과 해설**

정답: 1. 1차문, 2. 2차문, 3. 3차문, 4. 4차문, 5. 5차문

해설: 1. 1차문은 앞의 문장이 속도로 문동하는 \_\_\_\_\_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속도 폭도 곡선의 경향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문장 특징으로, 파장이 긴 \_\_\_\_\_ 영역보다 미세한 문장의 내부 구조 파악할 때 활용 가능함을 나타내므로 정답은 1이다.

2. 2차문은 \_\_\_\_\_에 따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등의 파장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_\_\_\_\_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장이 길면(나노) 물질의 자화현상, 주파수 파장은 \_\_\_\_\_의 진동 수로, 빛의 세기(파장)에 반비례하고 빛의 파장에 반비례함을 나타내므로 정답은 2이다.

3. 3차문은 문장의 구조와 문리(전치사, 접속사)에 대해 묻고 있는데, 전치사(접속사)가 문장의 부속을 바꿀 때 접속사(접속사)로 활용됨을 나타내므로 정답은 3이다.

4. 4차문은 \_\_\_\_\_에서 전치사(접속사)로 활용됨을 나타내므로 정답은 4이다.

5. 5차문은 \_\_\_\_\_의 속도에 가변적인 전치사 \_\_\_\_\_으로 이동함을 나타내므로 정답은 5이다.

해설에도 지문을 수록하고, 지문을 읽으며 파악했어야 할 요소들을 시각화하였습니다. **지문 파고들기**를 활용하면 지문을 더 효율적으로 독해하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지를 상세하게 풀이한 것은 물론 **X** 표시로 선지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체크하기**에서는 각 문항이나 선지에서 눈여겨볼 부분, 함정 요소, 문제 풀이 힌트 등을 제공합니다.

# 목차 Contents

## INTRO

수능 국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PART 1 수능 국어 독서 독해 전략

1. 본격적인 공부 전에 알아야 할 수능 국어의 상식 011
2. 수능 국어 독서에 대한 이해 013

#### 1. 어려운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문장 읽기)

##### 목표 ① 정확하게 읽기 032

- (1) 문장의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를 찾아 빼대 정보를 파악하자. 033
- (2) 수식하는 말은 괄호로 묶어 놓고 읽자. 034
- (3) 낱설고 어려운 개념은 □ 표시하고 풀이한 내용과 연결하자. 034
- (4) 연결된 문장을 나누어 문장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자. 035

#### 2. 독서 영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문단 읽기)

##### 목표 ②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044

- (1) 정의와 예시 044
- (2) 비교와 대조 056
- (3) 분류와 나열 065
- (4) 원인과 결과 073
- (5) 원리와 과정 081

#### 3. 지문 주제별 독해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글 읽기)

##### 목표 ③ 글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 파악하기 092

- (1) 인문 · 예술 093
- (2) 사회 110
- (3) 과학 · 기술 125

PART 2  
수능 국어 독서  
실전 훈련

1. 인문 · 예술

- (1) 니체의 예술 철학과 표현주의 146
- (2)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 철학 149
- (3) 영화와 역사의 관계 152

2. 사회

- (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156
- (2) 합리적 선택을 위한 기업의 의사 결정 159
- (3) 보험 163

3. 과학 · 기술

- (1) 초고층 건물 건축 기술 168
- (2) 방사광가속기 171
- (3)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174

4. 주제 복합

- (1) (가) 사랑에 대한 아퀴나스의 관점  
(나) 사랑에 대한 칸트의 관점 178
- (2) (가) 이타적 행동에 대한 진화론 옹호자들의 견해  
(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진화적 게임 이론의 견해 182
- (3) (가)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186

# 본격적인 공부 전에 알아야 할 수능 국어의 상식

수능 국어의 체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수능 국어의 체계를 먼저 소개하는 것은 머릿속에 국어의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공부를 할 때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래야 공부의 결과가 제대로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야. 서랍에 짐을 정리하기 전에 서랍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각 서랍에 무엇을 넣을지 계획을 먼저 세우면 많은 짐을 쉽고 빠르게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짐을 적절한 순간에 빼내어 사용할 수도 있겠지? 공부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에 대해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 공부는 효율적인 공부가 되고, 실제 시험장에서라도 도움이 될 거야.

수능 국어는 2022학년도 시험부터 ‘**공통과목**(문학 + 독서) +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or 화법과 작문)’의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어.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선택과목은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돼. 총 45문항 중, 공통과목은 34문항이고, 선택과목은 11문항이야.

## 공통과목

2022학년도 [한국어능력시험] 문항지

1 국어 영역 **출시형**

1. 국어 영역의 구성

2. 국어 영역의 구성

3. 국어 영역의 구성

4. 국어 영역의 구성

5. 국어 영역의 구성

12 국어 영역 **출시형**

1. 국어 영역의 구성

2. 국어 영역의 구성

3. 국어 영역의 구성

4. 국어 영역의 구성

5. 국어 영역의 구성

독서

문학

독서 지문은 **제제**별로 ① 인문(철학 등), ② 사회(법, 경제 등), ③ 예술, ④ 과학(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등), ⑤ 기술(기술 원리, 기계 장치 등) 등으로 나눌 수 있어. 수능 국어에서 독서는 총 17문항이 출제돼.

문학 지문은 **갈래**별로 ① 현대시, ② 현대소설, ③ 고전시가, ④ 고전소설, ⑤ 극, ⑥ 수필 등이 있고, 수능 국어의 문학은 독서와 마찬가지로 총 17문항이 출제돼.

### ○ 공통과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공통과목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갖춰야 한다고 여겨지는 배경지식과 어휘력, 독해력 등’을 바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구해. 다만 이때 ‘지문의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지’,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사고력과 배경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 그러니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내신 공부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수능 국어 영역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무엇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실전에 적용해 보는 공부 과정도 필요해.

# 1

## 어려운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문장 읽기)

### 목표 1 정확하게 읽기

첫 번째 목표인 ‘정확하게 읽기’를 달성하기 위해 문장부터 공부해 보자! 문장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문장을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라고 설명하고 있어. 쉽게 생각하면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의 문장이야. 문장이 모여 문단을 이루고 문단이 모여 글(지문)이 되는 만큼, 문장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겠지?

### + 국어의 문장 성분 알아 두기!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7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 중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문장에서 주성분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주어와 서술어야. 그러니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을 때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 특히 긴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 ‘주어 1’과 호응하는 ‘서술어 1’, ‘주어 2’와 호응하는 ‘서술어 2’와 같이 서로 호응하는 주어와 서술어의 짝을 지으며 읽어야 문장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영키지 않아.

어머니는	동생이	대학에	합격한	후에	동생에게	새	노트북을	주셨다.
주어 1	주어 2	부사어	서술어 2	부사어	부사어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1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문장 성분을 이해하면 문장의 뼈대 정보를 찾을 수 있어. 뼈대 정보란 문장의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 외에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정보를 의미해. 그래서 위 문장에서 전체 문장(안은문장)의 뼈대가 되는 부분은 ‘어머니는 동생에게 노트북을 주셨다.’가 돼.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주다’이므로 의미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그래서 ‘동생에게’는 부사어로 주성분은 아니지만,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되는 거야. ‘주다’ 이외에도 ‘같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등은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해. 물론 우리는 지금 수능 국어 독서 지문을 잘 읽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문법적으로 문장 성분을 하나하나 공부하려 하는 건 아니야. 앞서 설명한 내용은 참고만 해 두면 돼. 중요한 건 문장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분명하게 파악해 두면 다소 복잡한 구성의 문장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들을 분석해 보면서 실전적인 문장 독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공부해 보자.

### STEP 1 전략 세우기

글을 읽고 이해할 때에는 사람마다 이해하기 편한 의미 단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분석 방법을 모든 문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모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해. 이때 **어려운 문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

### 어려운 문장 유형

- 유형 ① 주어와 서술어의 짝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유형 ② 수식하는 말이 문장 속에 복잡하게 안겨 있는 경우
- 유형 ③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 경우
- 유형 ④ 조건, 순서, 인과, 비교 등의 의미에 주목하며 읽어야 하는 경우

## 2

독서 영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문단 읽기)

## 목표 2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지금까지 ‘정확하게 읽기’를 위해 독해하기 어려운 문장 유형과 그에 따른 독해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어. 이제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를 위해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어떠한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고, 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앞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를 배웠으므로 챕터 2에서는 **문장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글의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략을 학습하게 될 거야.**

수능 국어 독서 지문은 많은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지므로, 그 문장들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 지문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에서 정답 선지를 고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러한 핵심 정보는 글의 내용 전개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우리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하면, 읽는 이에게 주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겠지? 따라서 글을 읽을 때에도 글의 구성 의도를 고려하여 ‘**글이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니,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겠지?**’와 같은 식으로 사고하며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지.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지문을 읽으면서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내용 전개 방식들에 대해 알아볼 테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도록 해!

## (1) 정의와 예시

## STEP 1 전략 세우기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 전개 방식은 ‘정의와 예시’야. 우선 둘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 살펴 볼까?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는 의미이고, ‘**예시**’는 ‘예를 들어 보임.’이라는 뜻이야. 이러한 정의와 예시가 지문에서 내용 전개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정의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그 본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법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원리나 법칙, 개념의 속성 등을 드러내는 방법

두 방식 모두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본질 혹은 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다는 점에서 두 방식을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지문에서도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로 정의를 제시하는 문장이 먼저 나온 뒤, 그에 대한 예시를 드는 문장이 나오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지. 즉, 앞서 설명한 정의의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내용 전개 방식을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거야.

먼저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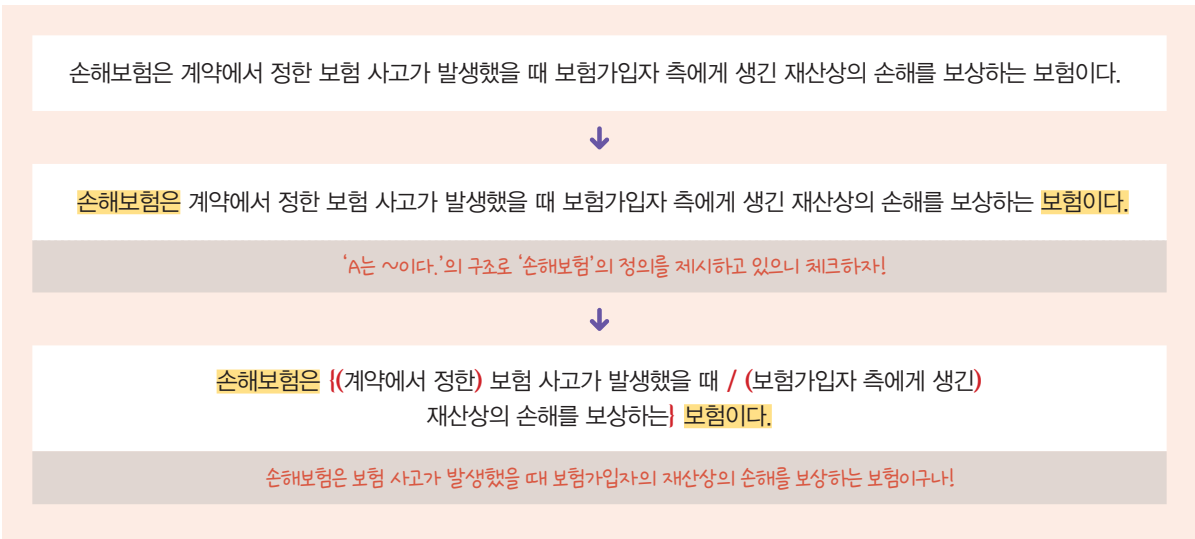
지문에서 **정의가 나타나는 문장**은 주로 'A는 ~이다.', 'A는 ~라는/하는 것을 말한다.', 'A란 ~을 뜻/의미한다.'와 같은 문장 구조로 표현돼.

- **손해보험은(A는)**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이다.)**
- **'전략적 공약'은(A는)**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선이란(A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을 뜻한다.)**

위와 같은 문장의 구조를 통해 정의가 제시되었다면 그 내용은 절대 대충 읽고 넘겨서는 안 돼. 지문에서 어떤 대상이나 현상, 이론 등의 정확한 뜻을 설명했다는 것은,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는 의미거든. 즉 정의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지문 독해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러므로 **지문에서 정의를 제시한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특히 정의가 꽤 길고 자세하게 제시되는 경우에는, 문제에서 그 개념 자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따라서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정의에 해당하는 문장을 차분히 끊어 읽으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아래에 제시한 독해의 흐름과 같이 말이야!

교과 2021학년도 11월





민호의 상황	감정 이론	인지주의적 이론
변압기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고 공포(정서)에 빠짐	<b>Q1.</b>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과 (관계 있음 / 관계 없음)	<b>Q3.</b>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과 (관계 있음 / 관계 없음)
	<b>Q2.</b> 정서 = _____ 요소(느낌)와 동일시	<b>Q4.</b> 정서 = _____ 요소(판단이나 믿음)와 동일시

먼저, 민호의 상황과 감정 이론을 연결지어 물어본 **Q1**과 **Q2**의 정답부터 확인해 볼까?

<sup>6</sup>감정 이론은 특정 정서를 그 정서가 내포하는 특정 감정 즉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느낌과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  
<sup>9</sup>감정 이론은 앞의 예에서 공포라는 민호의 정서를 공포감이라는 감정적 요소와 동일시하면서 민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지적 요소는 배제한다.

2문단에서 감정 이론은 공포감과 같은 감정적 요소를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시하며, 해당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고 설명했어. 또한 정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요소 외에 판단과 같은 인지적인 요소는 배제한다고 했으므로, **Q1**의 답은 ‘관계 없음’이고, **Q2**의 답은 ‘감정적’이 됨을 알 수 있어.

다음으로, 민호의 상황과 인지주의적 이론을 연결하여 물어본 **Q3**과 **Q4**는 3문단에서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어.

<sup>13</sup>이 이론(인지주의적 이론)에 따르면, 감정 자체는 정서와 동일시될 수 없고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들의 복합체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일 뿐이다. <sup>14</sup>인지주의적 이론은, 앞의 예에서 민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변압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믿는 것을 민호가 경험하는 공포라는 정서 상태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이 공포라는 정서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한다. <sup>15</sup>그리고 민호의 공포감은 민호의 판단과 믿음의 결과로 가지게 된 감정일 뿐이라고 본다.

인지주의적 이론에서는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인지적 요소를 어떠한 정서 상태와 동일시하거나 혹은 그 정서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본다고 했지? 즉 민호가 변압기에서 연기가 솟아나는 것을 보고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한 것은, 민호가 그 상황에서 느낀 공포라는 정서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공포를 규정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거야. 따라서 **Q3**의 답은 ‘관계 있음’이고, **Q4**는 ‘인지적’이 됨을 알 수 있어.

**1등급 전략**

- ✓ 전략 1 어떤 두 대상 A와 B를 비교·대조하는 전개 방식이 나타나면,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에 간단하게 표시 하면서 읽고, 사실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 전략 2 비교·대조의 대상인 A와 B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 전략 3 비교·대조의 대상이 관점(견해, 이론)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뿐만 아니라, ‘강화’와 ‘약화’ 관계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1~2** 다음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세요.

고1 2021학년도 6월

<sup>1</sup>주희는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설명하였다. <sup>2</sup>‘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sup>3</sup>그래서 주희는 인간의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sup>4</sup>그러나 정약용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으로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희의 관점을 비판하였다.

<sup>5</sup>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嗜好)’라고 보았다. <sup>6</sup>기호란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고 보았다. <sup>7</sup>꿩은 산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고 벼는 물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갖는 것처럼, 인간도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sup>8</sup>정약용은 인간에게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가 있다고 보았다. <sup>9</sup>먼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의 경향성으로,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sup>10</sup>다음으로,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으로, 선을 좋아하거나 악을 싫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sup>11</sup>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했으나,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를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sup>12</sup>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전히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1.**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주희	정약용
인간의 본성	_____ 과 _____ 으로 설명	_____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_____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로 설명
행위의 원인	· 선한 행위: _____ 기질 · 악한 행위: _____ 기질	· 선한 행위: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_____ · 악한 행위: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_____ 하지 못함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주희는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부여 받은 본연지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② 주희는 기질의 맑고 탁함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악한 행위를 유도하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정약용은 주희의 관점으로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3

## 지문 주제별 독해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글 읽기)

### 목표 3 글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 파악하기

먼저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보통 문단 단위로 제시되는 전개 방식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글의 전체적인 주제와 흐름 파악하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 지문은 하나의 주제를 바탕으로 완결된 글 형태로 제시돼. 이때 지문은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 특정한 전개 방식을 취하는데, 때로는 하나의 지문 안에 여러 개의 전개 방식이 제시되기도 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

‘엑스레이 아트’라는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고1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의 지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정리	전개 방식
처음	1문단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엑스레이 아트’의 정의	정의와 예시
	2문단 엑스레이 아트의 거장인 닉 베세이는 「튤립」과 「셀피」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창작 의도를 나타냈다.	‘엑스레이 아트’의 예시	
중간	3문단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촬영해야 한다.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 구현 원리	원리와 과정
	4문단 촬영 후,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끝	5문단 엑스레이를 활용한 엑스레이 아트는 현대 예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	

표에 제시되어 있듯, 일반적으로 지문은 ‘처음-중간-끝’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각 요소를 구성하는 문단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전개 방식이 반영되어 있어. 위 구성을 보면 하나의 지문 안에서 ‘정의와 예시’, ‘원리와 과정’이라는 두 가지 전개 방식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참고로 윗글에서 5문단에 제시된 엑스레이 아트의 의의는, 주요 정보 뒤에 추가적인 설명이 덧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기본적으로 지문이 어떠한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는 파악해 두는 게 좋아. 지문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는 것은 곧 지문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지문의 구조를 이해하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기 수월해지거든. 이렇게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을 손으로, 혹은 (숙련된 독해 능력을 가진 경우) 머릿속으로 정리해 가며 지문을 읽는다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의 근거를 파악하기 수월해질 거야.

결국 지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따른 지문의 특성과 지문의 구조를 알아 두어야 해. 앞으로 인문·예술, 사회, 과학·기술이라는 분야에 따라 지문이 어떠한 성격과 구조를 지니는지 설명하고, 실제 기출을 통해 지문의 구조를 직접 파악해 보는 활동을 할 테니 잘 따라와!

## (1) 인문 · 예술

### STEP 1 지문 살펴보기

#### ① 인문 · 예술 분야의 지문이란?

**인문 분야**는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뤄. ‘인문학’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쉽게 생각하면 결국 인간과 문화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와 같은 질문과 관련되어 있어. 각 질문에 대해 서양과 동양에서는 독자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답을 찾아갔는데, 인문 영역에서는 이러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자주 다뤄. 물론 이 외에 언어, 문화, 심리, 역사 등과 관련된 주제도 다루지.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학자들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 자체, 즉 논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아. 예를 들면 논증법의 일종인 ‘연역’, ‘귀납’, ‘변증법’ 등을 주제로 삼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지. 고3 평가원 시험에 등장한 인문 분야의 대표적 지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관련 주제	지문명
서양 철학	에피쿠로스의 자연학과 윤리학 2020학년도 6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2018학년도 수능 도덕적 운과 도덕적 평가 2016학년도 수능B
동양 철학	서양 의학의 영향을 받은 이익과 최한기의 인체관 2019학년도 6월 장자의 물이일체 사상 2016학년도 6월B 맹자의 ‘의’ 사상 2015학년도 9월B
논리학	반자유주의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2022학년도 9월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2019학년도 수능 지식의 구분 2017학년도 수능
역사학	(가) 『신어』에 담긴 육가의 사상 / (나) 『치평요람』에 담긴 세종과 편찬자들의 사상 2023학년도 6월 신채호의 역사관 2015학년도 수능B 고고학의 유물 자료 해석 2015학년도 6월A

**예술 분야**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나 기술과 관련된 분야야. 미술, 음악, 사진, 영화, 건축 양식 등에 대해 다룬 지문이 예술 분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 고대에서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기에 따라 미술 · 음악 · 건축 등이 다른 양식으로 나타났던 것은 알고 있지? 예술은 이 점을 전제해서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예술의 경향, 즉 **예술 사조**를 주제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 특정 시기에 나타난 작품의 특징이나 예술가, 혹은 유파(생각이나 방법 경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무리)의 생각을 탐구해 가는 거지. 또한 예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학’, 즉 ‘자연이나 인생 및 예술 따위에 담긴 미의 본질과 구조를 해명하는 학문’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이론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 이 또한 인간에 대한 물음과 관련되다 보니, ‘미학’을 다루는 지문은 인문 분야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지. 고3 평가원 시험에 등장한 예술 분야의 주제별 지문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아.

1~2 다음 글을 읽으며 빈칸을 채운 후 문제를 풀어 보세요.

2016학년도 수능A

1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_\_\_\_\_의 정의와 특성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군.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귀납의 논리적 한계가 지적받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어. 앞으로 이 문제와 해결·해소 방안을 다루는 전개 방식이 이어지겠지?)

2 먼저(귀납의 논리적 한계, 즉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순차적으로 두 가지 이상 제시되려나 봐. '먼저' 귀납의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하려 하고 있어.) 혹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①: 귀납의 정당화는 자연의 \_\_\_\_\_(한결같음)을 가정함 → 자연의 일양성은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_\_\_\_\_ 지식임 → 귀납의 정당화는 \_\_\_\_\_에 빠짐

3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제책을 제시한다. (귀납의 첫 번째 논리적 한계로부터 귀납을 옹호하려 하는 입장, 즉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제시되었군.)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라이헨바흐: 자연이 일양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_\_\_\_\_이라고 주장 →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_\_\_\_\_ 차원에서 해소하려 함

4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또 하나의 의견, 즉 귀납의 두 번째 문제가 제시될 거야.)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예시를 통해 앞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군.)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지문 이해  문제

Q1.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Q2. 흄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Q3.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

Q4.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형적 지식임을 증명한 데 의의가 있다.

Q5.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Q6. '어떤 현대 철학자'는 관찰 증거에 따른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지언정 그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낫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1.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고 적절한 말을 선택하여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보세요.

문단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1	- 귀납의 정의와 특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68 371 459 562">귀납</td> <td data-bbox="467 371 542 421">정의</td> <td data-bbox="563 371 1382 421">_____을 제외한,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td> </tr> <tr> <td></td> <td data-bbox="467 432 542 562">특징</td> <td data-bbox="563 432 1382 562">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_____ 특성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으나, _____를 지적받는 문제가 있음</td> </tr> </table>		귀납	정의	_____을 제외한,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		특징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_____ 특성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으나, _____를 지적받는 문제가 있음						
귀납	정의	_____을 제외한,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												
	특징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_____ 특성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으나, _____를 지적받는 문제가 있음												
2 3	-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①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하여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data-bbox="368 656 815 705">흠</td> <td colspan="2" data-bbox="943 656 1382 705">라이헨바흐</td> </tr> <tr> <td data-bbox="368 716 459 1025">사고 과정</td> <td data-bbox="467 716 815 1025">귀납의 _____를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함 →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적 지식이므로 _____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 → 귀납은 _____을 전제로 정당화되어야 함</td> <td data-bbox="839 801 914 943">← 관련하여 '귀납' 옹호</td> <td data-bbox="943 716 1382 1025">자연의 일양성 여부를 알 수 없음 →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경험에 따라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_____이라고 판단 가능 →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경우: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b>(좋지 않은 / 나쁘지 않은)</b> 추론이라고 판단 가능</td> </tr> <tr> <td data-bbox="368 1037 459 1126">결론</td> <td data-bbox="467 1037 815 1126">귀납의 정당화는 _____에 빠짐</td> <td></td> <td data-bbox="943 1037 1382 1126">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_____차원에서 옳은 선택임</td> </tr> </table>	흠		라이헨바흐		사고 과정	귀납의 _____를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함 →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적 지식이므로 _____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 → 귀납은 _____을 전제로 정당화되어야 함	← 관련하여 '귀납' 옹호	자연의 일양성 여부를 알 수 없음 →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경험에 따라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_____이라고 판단 가능 →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경우: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b>(좋지 않은 / 나쁘지 않은)</b> 추론이라고 판단 가능	결론	귀납의 정당화는 _____에 빠짐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_____차원에서 옳은 선택임	
흠		라이헨바흐												
사고 과정	귀납의 _____를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가정되어야 함 → 자연의 일양성은 경험적 지식이므로 _____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함 → 귀납은 _____을 전제로 정당화되어야 함	← 관련하여 '귀납' 옹호	자연의 일양성 여부를 알 수 없음 →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경험에 따라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_____이라고 판단 가능 →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을 경우: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이 다른 방법보다 <b>(좋지 않은 / 나쁘지 않은)</b> 추론이라고 판단 가능											
결론	귀납의 정당화는 _____에 빠짐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_____차원에서 옳은 선택임											
4 5	-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② 귀납의 미결정성 문제에 대하여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data-bbox="368 1205 815 1254">어떤 현대 철학자</td> <td colspan="2" data-bbox="943 1205 1382 1254">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td> </tr> <tr> <td data-bbox="368 1265 459 1541">사고 과정</td> <td data-bbox="467 1265 815 1541">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음 →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므로 어떤 하나로 <b>(결정됨 / 결정되지 않음)</b> → 다음에 짚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b>(있음 / 없음)</b></td> <td data-bbox="839 1361 914 1503">← 관련하여 '귀납' 옹호</td> <td data-bbox="943 1265 1382 1541">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_____)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음 → 하나의 가설·예측이 다른 것보다 낮다고 _____근거로 판단할 수 있음 → 확률 논리에 의한 개연성은 일상적 직관에 잘 <b>(맞음 / 맞지 않음)</b></td> </tr> <tr> <td data-bbox="368 1552 459 1664">결론</td> <td data-bbox="467 1552 815 1664">_____만으로 여러 가설·예측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낮다고 결정할 수 <b>(있음 / 없음)</b></td> <td></td> <td data-bbox="943 1552 1382 1664">귀납은 _____으로서 지위를 지킬 만함</td> </tr> </table>	어떤 현대 철학자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		사고 과정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음 →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므로 어떤 하나로 <b>(결정됨 / 결정되지 않음)</b> → 다음에 짚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b>(있음 / 없음)</b>	← 관련하여 '귀납' 옹호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_____)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음 → 하나의 가설·예측이 다른 것보다 낮다고 _____근거로 판단할 수 있음 → 확률 논리에 의한 개연성은 일상적 직관에 잘 <b>(맞음 / 맞지 않음)</b>	결론	_____만으로 여러 가설·예측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낮다고 결정할 수 <b>(있음 / 없음)</b>		귀납은 _____으로서 지위를 지킬 만함	
어떤 현대 철학자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												
사고 과정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음 →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므로 어떤 하나로 <b>(결정됨 / 결정되지 않음)</b> → 다음에 짚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b>(있음 / 없음)</b>	← 관련하여 '귀납' 옹호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 (_____)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음 → 하나의 가설·예측이 다른 것보다 낮다고 _____근거로 판단할 수 있음 → 확률 논리에 의한 개연성은 일상적 직관에 잘 <b>(맞음 / 맞지 않음)</b>											
결론	_____만으로 여러 가설·예측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낮다고 결정할 수 <b>(있음 / 없음)</b>		귀납은 _____으로서 지위를 지킬 만함											

2. 뒷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귀납에 대한 흠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②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 ⑤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1

## 인문 · 예술



## (1) 니체의 예술 철학과 표현주의

해설 P.072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과 2019학년도 9월

1 서양 철학은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성을 이데아로 ㉡상정하고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로 여겼다. 반면에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했다. 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2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니체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 이성 체계 모두를 부정했다. 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 세계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

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니체가 말하는 '힘에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끌어 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힘에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 작용을 하는데,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였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4 이러한 니체의 철학적 견해는 20세기 초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표현주의는 전통적인 사실주의 미학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주의 미학은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존재와 진리의 참모습을 모방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재현의 미학이었다. 그러나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사실주의 미학에서 이성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여겼던 감정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었기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매 순간 변화하는 감정을 중시했다. 그래서 대상의 비례와 고유한 형태를 왜곡하고, 색채도 실제보다 더 강하게 과장해서 그리거나 대비되는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했다. 또한 원근법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을 보임으로써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이 현실 공간의 재현이 아니라 화가 자

구조도

1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 철학 - _____ 중심의 근대 철학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
2	-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_____ 의 과정 속 타자가 가지는 의미에 주목 - 주체 = _____, 타자 =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없음)
3	▶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4	
5	
6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 -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함, 타자의 위상을 _____ 보다 격상시킴 - 새로운 인식의 틀, 인간 개개인이 지닌 고유성 _____ 의 근거를 마련

지문의 사실적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

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 ②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을 가리킨다.
- ③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 ④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 ⑤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제

7. ㉠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되도록 이끈다.
- ②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주체와의 합일을 이룬다.
- ③ 주체의 분열을 유도하여 자기성이 소멸되도록 만든다.
- ④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주체를 열린 세계에서 닫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어려운 문장 분석하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단어, 구절,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8.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새로 산 연필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 ②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었다.
- ③ 들판을 가로지르는 새 도로가 놓여 있었다.
- ④ 하루빨리 다리가 놓여야 학교에 갈 수 있다.
- ⑤ 꽃무늬가 놓인 장롱을 보면 할머니가 생각한다.



# 1

## 어려운 문장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문장 읽기)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039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문장 분석과 해설의 문장 분석을 비교해 보자. 참고로 해설에서는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음 표와 같이 각 체크 요소를 구분해서 표시했어.

체크하기	체크할 부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주어-전체 서술어'와 필수 성분</li> <li>• 문장들이 나란히 이어진 경우 각 '주어-서술어'와 필수 성분</li> </ul>	뼈대 정보
2.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문장 속에 안긴문장이 있는 경우</li> </ul>	수식 정보
3.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긴문장 속에 안긴문장이 있는 경우</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적 관계를 알 수 있는 표현, 필수 체크 표현</li> </ul>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설고 어려운 개념, 이, 그, 저 등의 지시어와 해당 풀이 내용</li> </ul>	
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들이 나란히 이어진 경우 문장과 문장을 구분하는 부분</li> </ul>	

{HDD(Hard Disk Drive)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SSD(Solid State Drive)'이다. SSD의 용도나 외관, 설치 방법 등은 HDD와 유사하다.

1. HDD를 설치하는 것보다 SSD를 설치하는 방법이 복잡하다. ✕

→ SSD의 설치 방법은 'HDD와 유사하다.'

세포가 일을 할 때(원인+조건) /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발생하는데(결과), / (몸은) 이 노폐물들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만(조건) 몸이 일정한 상태, 즉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결과)

2. 세포가 생성하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해야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

→ 세포가 생성하는 여러 노폐물을 '인체 밖으로 내보내야' 몸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2

## 독서 영역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문단 읽기)

### (1) 정의와 예시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053

1~3

<sup>1</sup>'전략적 공약'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A는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문장 구조로 글이 시작되고 있네. '전략적 공약'의 정의는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인가 봐.

<sup>2</sup>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대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할 때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인 '전략적 공약'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제시하였어. <sup>3</sup>만약 소도시에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연다면 상황이 어려울 때 매장을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전략적 공약'의 정의와 그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도시에 적당한 규모의 마트를 여는 상황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네. <sup>4</sup>그러나 이는 경쟁사로 하여금 새로운 마트가 진출해도 공존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sup>5</sup>이로 인해 소도시에 먼저 진출한 마트는 해당 지역의 시장성에 비해 과잉 투자로 비칠 만큼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이 문장은 '전략적 공약'의 정의 중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내용과 대응돼. '과잉 투자로 비칠 만큼 규모'를 키워 철수나 위치 변경 등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sup>6</sup>물론 소도시에 처음 진출한 대규모 마트의 단기적 이익은 떨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전략적 공약'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내용과 대응되는군!

1. 윗글에서 정의와 관련 예시가 함께 제시된 문장을 찾아 그 번호를 적어 보세요.

정의: 문장 ( 1 )

예시: 문장 ( 3 ~ 6 )

2. 윗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표의 빈칸을 채워 보세요.

전략적 공약의 정의와 특징	
①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여	소도시에 먼저 진출할 때 규모를 크게 함
② 상대를 압박하고	경쟁사가 해당 소도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
③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3

지문 주제별 독해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글 읽기)

## (1) 인문 · 예술

## STEP 2 문제로 확인하기

문제 P.097

## 1~2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1 귀납은 현대 논리학에서 연역이 아닌 모든 추론,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든 추론을 가리킨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귀납의 정의와 특성을 제시하면서 시작하고 있군.** 이 특성으로 인해 귀납은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한다.** (귀납의 논리적 한계가 지적받는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어. 앞으로 이 문제와 해결·해소 방안을 다루는 전개 방식이 이어지겠지?)

2 **먼저**(귀납의 논리적 한계, 즉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두 가지 이상 순차적으로 제시되거나 봐. '먼저' 귀납의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하려 하고 있어.) 혹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자연의 일양성은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대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①: 귀납의 정당화는 자연의 일양성(한결같음)을 가정함 → 자연의 일양성은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임 →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짐**

3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라이헨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다.** (귀납의 첫 번째 논리적 한계로부터 귀납을 옹호하려 하는 입장, 즉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제시되었군.)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먼저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그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결국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라이헨바흐의 논증은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라이헨바흐: 자연이 일양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 → 귀납의 정당화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 함**

4 귀납의 또 다른 논리적 한계로(귀납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또 하나의 의견, 즉 귀납의 두 번째 문제가 제시될 거야.) 어떤 현대 철학자는 미결정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문제는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예시를 통해 앞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군.)** 몇 개의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지나는 곡선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예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에 발견될 점을 예측할 때, 기존에 발견된 점들만으로는 다음에 찍힐 점이 어디에 나타날지 확정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점들을 관찰 증거로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귀납의 논리적 한계 ② 어떤 현대 철학자: 아무리 많은 관찰 증거가 있어도 특정한 가설이나 예측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없음**

5

- 미니멀리즘 이후의 조각

배경

- 미니멀리즘을 통해 부각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짐
- 미술관 바깥을 작업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는 예술가들이 등장함



특징

- 대지 미술
-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여 **구체적인 장소의 특성**을 작품 의미의 근원으로 삼음
- 작품-장소-감상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됨

#### 4.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정답풀이

- ⑤ 논지의 대상이 변모해 온 양상을 시간적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윗글은 '조각'과 '장소'의 관계를 중심 화제로 삼아 조각에 대한 해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근대 이전에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했던 조각은(1문단) 근대 이후에는 장소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작품으로 감상'하는 대상이 되었고(2문단), 19세기 이후에는 '작품 자체에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게 되었으며(3문단), 미니멀리즘을 거쳐(4문단) 그 이후의 대지 미술에 이르게 되었다(5문단).

##### 오답풀이

- ① 논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조각에 대한 논쟁은 확인할 수 없고, 논쟁이 벌어진 배경에 대한 분석 또한 확인할 수 없다.

- ② 통념에 대한 비판을 통해 특정 이론을 도출하고 있다.

조각에 대해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인 통념을 비판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대립적인 관점을 절충하고 있다.

1문단에서 조각과 장소의 긴밀한 관련성을, 2문단에서는 조각과 장소의 관련성이 줄어드는 변화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하나의 현상을 해석하는 대립적인 관점을 절충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나열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1

## 인문 · 예술

### (1) 니체의 예술 철학과 표현주의

문제 P.146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서양 철학은 ①존재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2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3그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4그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하며 존재의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성질을 강조한 파르메니데스의 관점이 제시되었어. 5이에 반해(파르메니데스의 관점과는 대조되는 관점이 제시되었군.)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6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긍정했다는 점에서 파르메니데스의 관점과는 대조적이네. 7존재에 대한 두 철학자의 견해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주었다. 8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었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종합하여 존재를 두 종류로 구분했네. 앞으로 이 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군.) 9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의 존재는 변한다고 생각했다. 10그리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②상정하고 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로 여겼다. 플라톤의 관점에 따르면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는 현실 세계의 존재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는 이데아에 대응되는군. 11반면에(이데아와 대조적 특성을 지닌 현실 세계의 존재에 대해 설명할 거야.)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12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했다. 13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하며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된 플라톤의 관점을 정리해 보자.

이데아	현실 세계의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li> <li>영원·불변·완전한 진리</li> <li>이성에 의해서만 인식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데아를 모방한 것</li> <li>끊임없이 변화하는 불완전한 존재</li> <li>감각을 통해 인식 가능</li> </ul>

2 14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니체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반박하는 니체의 견해가 제시될 거야.) 15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16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유일한 세계라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말하는 진리, 신 중심의 초월적 세계, 합리적 이성 체계 모두를 부정했다. 결국 니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한 셈이네. 17니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진리를 영원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 현실 너머의 이상 세계와 초월적 대상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았다. 18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인간은 허무에 ③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니체는 플라톤의 철학적 견해에 기반을 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고, 허무에 직면하게 만들었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군.

3 19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인간이 허무에 직면했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니체의 방안이 제시될 거야.) 생명의 본질을 ④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20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21니체가 말하는 '힘에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 극복을 이끌어 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니체는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에의 의지'를 통해 생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2니체는 이러한 '힘에의 의지'가 생성과 변화의 끊임없는 과정 중에서 창조적 생성 작용을 하는데, 그 최고의 형태가 예술이라고 했다. 23그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였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24그는 예술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하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니체는 예술이 '힘에의 의지'를 통한 창조적 생성 작용의 최고 형태이므로, 이를 통해 생명력 회복과 허무 극복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이군.

구조도

존재에 대한 서양 철학의 관점					
파르메니데스 - 존재의 생성, 변화, 소멸 <b>부정</b>	헤라클레이토스 - 존재의 생성, 변화, 소멸 <b>긍정</b>				
↓					
플라톤					
<b>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현실 세계의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이데아)를 구분</li> <li>- 현실 세계의 존재: 이데아를 <b>모방</b>, 감각을 통해 인식</li> <li>- 이데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의 <b>근원</b>, 오직 <b>이성</b>에 의해 인식</li> </ul>				
<b>2</b> <b>3</b>	<p>니체의 철학적 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을 <b>허무</b>에 직면하게 한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b>부정</b></li> <li>- '힘에의 의지'를 통한 생명의 본질 <b>회복</b>을 중시</li> <li>- 예술: '힘에의 의지'를 통한 창조적 생성 작용의 최고 형태 → 예술을 통한 생명력 회복, 허무 <b>극복</b>의 가능성을 강조</li> </ul>				
<b>4</b> <b>5</b>	<p>니체의 철학을 수용한 표현주의</p> <table border="1"> <tr> <td>특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실주의</b> 미학을 따르지 않음</li> <li>- 인간의 감정과 충동 표현을 예술의 <b>목적</b>으로 봄</li> <li>- 대상의 비례·고유 형태 <b>왜곡</b>, 과장된 색채, 대비되는 <b>원색</b> 사용</li> <li>- <b>원근법</b>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li> </ul> </td> </tr> <tr> <td>의의</td> <td>- 화가 자신의 <b>내면</b>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예술에 대한 새로운 <b>해석</b>을 보여 줌</td> </tr> </table>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실주의</b> 미학을 따르지 않음</li> <li>- 인간의 감정과 충동 표현을 예술의 <b>목적</b>으로 봄</li> <li>- 대상의 비례·고유 형태 <b>왜곡</b>, 과장된 색채, 대비되는 <b>원색</b> 사용</li> <li>- <b>원근법</b>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li> </ul>	의의	- 화가 자신의 <b>내면</b> 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예술에 대한 새로운 <b>해석</b> 을 보여 줌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실주의</b> 미학을 따르지 않음</li> <li>- 인간의 감정과 충동 표현을 예술의 <b>목적</b>으로 봄</li> <li>- 대상의 비례·고유 형태 <b>왜곡</b>, 과장된 색채, 대비되는 <b>원색</b> 사용</li> <li>- <b>원근법</b>에 얽매이지 않는 화면 구성</li> </ul>				
의의	- 화가 자신의 <b>내면</b> 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예술에 대한 새로운 <b>해석</b> 을 보여 줌				

★ 어려운 문장 분석하기

<sup>23</sup>그는(니체는) **{(본능에 내재한)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였고, **{(니체는)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인간의 삶의 가치 상승을 도와주는)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

→ 이 문장에서는 배제 정보인 '니체는 예술적 충동을 중시하였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힘에의 의지'로 보았다.'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이때 문장 끝에 있는 서술어 '보았다'는 '대상을 평가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을 ...으로}**라는 문장 성분이 필요하지.

지문의 전개 방식을 확인하는 문제 정답률 84%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⑤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근거: **1** <sup>13</sup>플라톤의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이후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 + **2** <sup>14</sup>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은 근대에 이르러 니체에 의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 **4** <sup>25</sup>회화에서 독일의 표현주의가 니체의 철학을 수용했다. ~<sup>28</sup>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1문단에서 플라톤의 철학적 견해가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되었다고 했는데, 2문단에 따르면 니체의 철학은 플라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비판)했다. 그리고 4문단에서 이러한 니체의 철학은 독일의 표현주의 회화에 영향을 미쳐, 니체의 철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이해한 표현주의 화가들은 예술의 목적을 인간의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뒷글은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을 부정하는 니체의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2문단~3문단에서 니체의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예술 양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뒷글에서 예술에 대한 니체의 견해가 시대에 따라 달리 평가받는다는 설명은 찾을 수 없다.

③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뒷글에서는 예술에 대한 니체의 시각과 서양 철학의 주류적 입장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니체에 의해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1문단에서 '존재'에 대한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가 플라톤에 의해 통합된다고 볼 수 있지만, 뒷글에 예술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며, 이들이 니체에 의해 통합되는 과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도 없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① 헤라클레이토스와 니체는 ㉠이 변화한다고 생각했다.

근거: 1 6그(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2 15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인 니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니체는 그러한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받아들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고 주장했으므로, 둘은 모두 ㉠이 변화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답풀이

②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은 ㉠이 불완전하다고 여겼다.

근거: 1 4(파르메니데스)에게 존재(㉠)는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8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었다. ~10이데아를 영원하고 불변하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한 진리로 여겼다. 11반면에 현실 세계의 존재는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 이데아와 달리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파르메니데스는 ㉠을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불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 완전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한편 플라톤은 ㉠을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고 이를 각각 불완전한 존재와 완전한 존재로 해석했다.

③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1 6그(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8플라톤은 존재(㉠)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로 나누었다.

플라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있다고 여겼다. 한편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의 과정 중에 있으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④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달리 ㉠의 생성을 부정했다.

근거: 1 3(파르메니데스)는 어떤 존재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존재(㉠)의 생성과 변화, 소멸을 부정했다. 5이에 반해 헤라클레이토스는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긍정했다.

⑤ 플라톤은 니체와 달리 ㉠의 근원을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근거: 1 10(플라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 12또한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존재와 달리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이데아로 상정'했으므로, ㉠의 근원을 '이데아'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플라톤은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는 이성 중심의 사유를 전개'하면서,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 ㉠의 근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참고하기** 뒷글의 전반부에는 존재(㉠)에 대한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니체' 등 여러 철학자들의 관점이 소개되었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나 견해가 소개될 경우에는 이 문제처럼 다양한 인물들이나 유파의 견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철학자들의 주요 견해를 꼼꼼히 정리해 두었다면 선지의 세부적인 내용과 비교해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야. 혹시 처음부터 꼼꼼히 읽지 않았더라도 선지와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각 철학자의 견해가 제시되었던 부분으로 돌아가 내용을 확인했다면, 어떤 선지가 적절한지 금방 골라낼 수 있었을 거야. 세부적인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일수록 지문과 선지의 내용을 차분하게 대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두자.